

리틀 태극전사들 ‘금의환향’ ... “성장 지켜봐주세요”



17일 서울광장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준우승 달성 축구대표팀 환영식에서 대표팀 선수들과 코칭스태프가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초여름밤 골 폭풍... 오~ 필승 광주 FC

K리그2 부천과 홈경기 4-1 대승
이오펜→펠리페→펠리페→윌리안
2주간 휴식 후 완벽 팀워크 선보여
15경기 연속 무패...리그 1위 독주
기성용 4번째 관전 ‘연승 행진’

잘 쉬고, 잘 준비한 광주FC가 ‘원팀’으로 시원한 골 폭풍으로 1위 질주에 속도를 붙였다.

광주는 지난 1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부천 FC와 2019 K리그2 15라운드 경기를 펼쳤다.

2주간의 A매치 휴식기 결과에 관심이 쏠렸던 이날 광주는 내용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는 4-1 대승으로 15경기 연속 무패행진에 성공했다. 2위 부산아이파크의 추격을 물리치고 1위 독주도 이어갔다.

가벼운 몸놀림으로 그라운드를 누빈 광주는 김정환과 두현석의 무서운 스피드로 부천을 압박했다. 또 자로 켜듯 정확한 패스로 깔끔하게 경기를 풀어 가면서 휴식기 훈련 성과를 보여줬다.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무리한 게 아쉬웠지만, 뒤늦게 터진 광주의 화력은 매서웠다. 그 시작점에는 물오른 이오펜의 원발이 있었다.

후반 11분 광주가 페널티 아크 바깥쪽에서 프리킥을 얻어냈다. 그리고 이오펜이 낮게 패린 공이 그대로 부천 골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경기의 방향이 바뀌었다.

박진섭 감독도 “2주 동안 여러 가지를 준비했다. 전반에 준비했던 게 잘 이뤄진 것 같은데 골이 안 나와서 선수들이 조바심을 가졌던 것 같다. 후반에 프리킥 골 첫 골이 들어가면서 경기가 잘 풀렸던 것 같다”며 첫 골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오펜의 두 경기 연속 프리킥 골이 터진 뒤 광주의 쇼타임이 시작했다. 2분 만에 펠리페가 환호했다.

이날 광주 데뷔전을 치른 박선주가 상대의 드로잉을 누아채면서 시작된 공격.빠르게 오른쪽으로 파고든 김정환이 펠리페에게 공을 받아 슈팅을 시도했다. 골을 기대했던 순간, 아쉽게 오른쪽 골대에 공이 맞았다.

박선주가 튀어나온 공을 잡아 슈팅을 날렸지만 이번에는 왼쪽 골대에 막혔다. 펠리페의 세 번째 슈팅 끝에는 골키퍼가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다시 공을 잡은 펠리페가 침착하게 빈 공간을 뚫고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27분에는 두 명의 수비수를 따돌린 펠리페가 달려 나온 상대 골키퍼 최철원을 피해 공을 밀어 넣으면서 멀티골에 성공했다.

광주는 후반 34분 페널티킥을 내주며 1실점은 했



지난 1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 부천FC의 K리그2 15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27분 펠리페(9번)의 골이 나온 뒤 김정환(왼쪽) 등 광주 선수들이 포옹하며 기뻐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지만, 후반 40분에 나온 윌리안의 골을 묶어 4-1 승리를 완성했다.

경기장을 찾은 4697명의 팬을 환호하게 만든 광주 선수들은 경기가 끝난 뒤 ‘내’가 아닌 ‘우리’를 말하며 서로에게 승리의 공을 돌렸다.

박선주는 “많이 뛰어서 힘들지만 팀이, 선수들이 진짜 다 한 마음으로 잘해줘서 편하게 경기할 수 있었다. 앞에서 좋은 공격수들이 알아서 잘해줬다”며

동료들과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경기의 흐름을 바꾼 이오펜도 “동료들에게 너무 고맙다”며 “우리”를 이야기했다.

이오펜은 “동료들이 다 잘해줘서 프리킥도 나고 잘 수 있게 밀어주니까 내가 잘 수 있었다”며 “나는 공 한 것 밖에 없다. 뒤에 동료들이 다 지켜주고 있는데 자신이 없을 수 없다. 애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웃었다.

2주간의 시간 동안 완벽하게 재충전하고 팀워크를 더한 광주. ‘하나’가 된 광주가 시원한 승리로 무패행진 역사를 새로 써가고 있다.

한편 이날 경기장을 찾은 광주FC 홍보대사 기성용(뉴캐슬 유나이티드)은 ‘승리의 아이콘’으로 눈길을 끌었다. 기성용이 찾은 4경기에서 광주는 11득점으로 4승을 신고했다.

/김여을 기자 wool@kwangju.co.kr



생애 첫 메이저 정상

우들랜드 US 오픈...우즈 21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손꼽는 장타자 게리 우들랜드(미국)가 데뷔 11년 만에 메이저대회 정상에 올랐다.

우들랜드는 1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파71)에서 열린 제119회 US오픈 골프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를 묶어 2언더파 69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71타로 우승했다.

고교 시절까지 골프와 농구를 병행한 우들랜드는 농구 특기생으로 대학에 들어갔지만 1년 뒤 중퇴하고 골프 특기생으로 다른 대학에 입학한 특이한 경력을 지녔다.

안병훈(28)은 이븐파 71타를 쳐 공동16위(3언더파 281타)에 올랐다. 타이거 우즈(미국)는 후반 6개홀에서 버디 4개를 뽑아내는 뒷심을 발휘, 2언더파 69타를 쳐 공동21위(2언더파 282타)로 순위를 끌어 올렸다.

/연합뉴스



LPGA 통산 9승

헨더슨, 마이어 클래식 우승

브룩 헨더슨(캐나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9승을 달성했다.

헨더슨은 17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의 블라이트워즈 컨트리클럽(파72·6639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총상금 200만달러)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로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합계 21언더파 267타를 기록한 헨더슨은 공동 2위 선수들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우승 상금은 30만달러(약 3억5000만원)다.

4월 롯데 챔피언십에 이어 시즌 2승을 달성한 헨더슨은 LPGA 투어 통산 9승을 거둬 캐나다 선수 최다승 기록을 세웠다. 이는 LPGA 투어뿐 아니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까지 통틀어 캐나다 선수의 최다 우승 기록이다. 한국 국적의 선수로는 유소연이 13언더파 275타, 공동 9위를 기록해 유일하게 ‘톱10’에 진입했다.

/연합뉴스

광주대 축구, 동강대 꺾고 6경기 무패

U리그 6권역 3위 유지... 9월 6일 초당대와 후반기 첫 경기

광주대학교 축구부가 동강대를 꺾고 6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광주대는 최근 광주과학기술원 축구장에서 열린 2019 U리그 6권역 13라운드 동강대와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2-0으로 이겼다.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기록한 광주대는 6승1무1패로 리그 3위를 유지했다.

광주대는 전반 42분 나온 이종민(2년)의 골로 기선을 제압했다. 이종민은 6경기에서 6골을 기록

하고 있다. 후반 11분에는 김명순(1년)이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팀의 두 번째 득점을 만들었다.

기본 좋은 승리로 전반기를 마감한 광주대는 휴식기를 보낸 뒤, 9월 6일 목포에서 초당대와 만난다. 한편 2019시즌 U리그에는 전국 9권역, 82개 팀이 참가했으며 6권역은 광주대를 비롯해 한려대, 남부대, 초당대, 조선이공대, 동강대, 동신대, 조선대, 호남대 등 9개 팀으로 구성됐다.

/김여을 기자 wool@kwangju.co.kr

메시, 또 국대 징크스?

코파 아메리카 조별 1차전...아르헨티나, 콜롬비아에 0-2 패

‘국가대표’만 되면 고개를 숙이는 리오넬 메시(32·바르셀로나)의 메이저 대회 첫 우승 도전에 먹구름이 겹쳤다.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FIFA랭킹 11위)가 지난 16일 브라질 아레나 폰테 노바에서 열린 2019 코파 아메리카 조별리그 B조 1차전 콜롬비아(13위)에 0-2로 패했다.

이날 아르헨티나는 메시를 비롯해 세르히오 아게로(31·맨체스터 시티), 앙헬 디마리아(31·파리 생제르맹)등 슈퍼스타가 출출동했다. 하지만 경기

내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1979년 이후 40년만에 개막전에서 패배했다.

메시는 국가 대표로 출전한 메이저대회에서 징크스에 발목을 잡혀왔다. 2006 독일 월드컵에서 만 18세로 메이저 대회에 데뷔한 메시는 그동안 월드컵과 코파아메리카에 8차례 출전했으나 ‘무관’에 그쳤다. 월드컵 준우승 1차례, 코파 아메리카는 5차례에 출전해 준우승만 3차례 기록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